



(대림절 둘째 주일)

1부 09:30 인도: 1부 홍순진 목사
2부 11:30 2부 이종백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66:8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26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116(구주 강림 2)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485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박요환 집사
2부: 김성수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열왕기상1:1~4 (구약p. 507) | 인도자
- 찬양 | 1부: 주만 바라볼지라 | 고등부
2부: 오 고귀하고 찬란한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늙어감의 은혜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예수 인도하셨네
- 찬송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 다함께
주가 일하시네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I부: 허영철 집사 II부: 설동한 장로



15:00 인도: 이종백 목사

- 찬양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강순교 권사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누가복음18:1~8 | 인도자
- 설교 |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 이종백 목사
-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축복기도 | 이종백 목사

◎ 다음주 기도: 최현주A 권사

수요기도회

19:00 인도: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임경애 집사
- 찬양 | 8샘(조은샘)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창세기1:3~13 | 인도자
- 설교 | 하나님이 이르시되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정장숙 집사 찬양: 9샘(다슬샘)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391장	64장	73장	69장	14장	78장
말씀	욥34:1-30	욥34:31-35:16	욥36:1-25	욥36:26-37:24	욥38:1-18	욥38:19-38



본문: 사도행전4:36~5:11
제목: 헌신 그리고 헌신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무상통, 아무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산을 드키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인들, 유무 상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헌신에 있어 정말 결점 없는 모습을 서로 보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결점 공동체 안에 악성 바이러스, 병균이 침투했어요. 이나나이의 삼베라가 땅을 팔고 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통이 커집니다. 다 내어놓기는 너무 많다. 아깝다. 아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알미를 숨깁니다. 베드로가 이나나이가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나나이가 죽습니다. 3시간 후, 이 끔찍한 일을 전혀 모르는 아내 삼베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삼베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나 물을 때 삼베라가 네 거짓말입니다. 부장부수라고 남편 따라 그대로 거짓말했다. 삼베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땅값을 감추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죽습니다. 오늘 본문, 불편한 본문이죠 가슴에 와 닿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살벌하고 무시무시하죠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사건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신하는데 인쇄했던 사람이 이런 본문을 대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지, 아니면 불편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무하고, 심하고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헌신이 자연스러운 사람, 헌신에 익숙한 사람, 헌신을 성실하게 잘 채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왜 내가 죽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못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가? 헌신이 턱없이 부족한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참 감사하다. 이보다 감사한 일은 없다. 안도하게 돼요. 내 헌신이 부족하고 시원찮았는데, 나 대신 이나나이의 삼베라가 죽었구려. 이런 본문을 통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열매가 솟아나고, 또 다른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 헌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부부가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은 각자 채워야 할 헌신의 양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채워야 할 헌신의 양이 있죠. 그걸 채워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처럼 좋게 끝난 일은 없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는 시작처럼 좋게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냅니다. 세상은 시작보다 끝이 나쁩니다. 성경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좋았더라, 시작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쁨도, 슬픔도, 울음도, 피로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해와 달 빛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시작처럼 마지막이 좋고, 시작보다 마지막이 좋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이 좋고, 마지막 축도도 좋죠. 교회 울 때 시작보다 미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시작만큼이나 좋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 축복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웃으면 다 좋습니다. 단소송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돌아갈 곳에 없다. 아무리 실패해도 돌아갈 집이 없다. 그래서 슬피 운다. 예를 태운다, 이것보다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그러면 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해가 지고, 인생의 해가 질 때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단소송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갈 곳,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골3:1). 처음 예수를 따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헌신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헌신이 되어,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주관: 손강덕 장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Division), 안 내 (Content), 봉 헌 (Offering). Rows include 1부 (강근숙 최현주A), 2부 (최금화 김용순 김정애 강정욱), and 차량안내 (김상진 김영민).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 List of supported churches and organizations: 사타자교회, 동가튼교회, 동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돈화교회, YMCA, YWCA, C.C.C, 중국-장경식, 김기웅, 태국-신동운, 일본-조원철, 필리핀-이교성, 미얀마-홍길주, 마다가스카르-박재일, 경안여고, 경안성로원, 경안신육원, 안동교도소, 안동경찰서, 범양선교회, 남중국선교위원회, 러시아카프카스신학교, CTS, 국제기아대책기구, 경북새터민선교회, 원동교회, 서미교회, 유동교회

예배모임 안내

Table of church services: 주일낮예배 (1부, 2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 Staff list: 원로목사 (박종석), 부목사 (권태환, 이종백, 홍순진), 교육목사 (김영숙), 원로장로 (권영만, 박종만, 박성수, 박두용, 권인철, 신노균, 김덕영, 김경환, 강세일, 안연호, 정복수, 이교섭, 김윤환, 김기일, 조창래), 은퇴장로 (김봉학, 박용래, 강신원, 장부익, 김성대, 오태희, 안상홍, 문상호, 정유진, 정호경, 최태규, 황천석, 김재홍(전임)), 시무장로 (박무주, 정동수, 손강덕, 권영준, 김성수, 설동환, 서정용, 정석진, 이규훈, 이종기, 천석우, 김경일, 박영복, 신상균, 임규선, 김희동), 지휘 (박수경), 피아노 (장은혜, 이지혜), 오르간 (신강희, 강근숙, 임해광, 허은영, 신디, 남시영, 강계연, 배의진)

- 환영: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목요경배와 찬양(이번 주 주제: 하나님), 목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엘림실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1층 엘림실
모임: 2024년 신입사리집사 교육: 오늘, 다음 주일(17일), 12시 40분, 3층 다윗실
월례회: 2부 예배 후-1부남: 카페 / 2부남: 카페 / 3부남: 카페 / 5부남: 당회실 / 6부남: M층 도서실
순장모임: 수요기도회 후, 본당
말씀: 권태환 목사 부임: 9~16생, 청년부, 행정담당(010-3450-5491)
12월 교회 행사일정: 2024년 신입사리집사 교육(10일, 17일), 경안여고 성탄예배 및 성가 합창제(21일)
감사위원회: 제직부서 및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각 기관은 회계장부와 통장을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역부서(교회학교, 찬양대 등)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수절에 필요한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사업체를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오늘은 5팀이 담당합니다(본당, 계단, 화장실, 카페등).
성경통독(134): 강안숙(6)
경안여고 성탄 예배 및 성가 합창제: 21일(목) 오전 8시 50분, 도원교회
경안노회여전도회 연합회 제39회 임원단 수련회: 12일(화) 오전 8시 30분~낮 12시 30분, 안동서부교회
김태영 목사 원로목사(예우) 추대식: 오늘 오후 3시, 백양로교회
안동시청 함께하는 2023 성탄음악회(주최-안동시기독교총연합회): 14일(목) 오후 7시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 초청 찬양사역자-민호기, 배다혜(입장권을 사무실에서 받아주세요)
경안노회 장로산악회 제20회기 제70차 산행: 11일(월) 오전 10시, 경북도청신도시 호민지 둘레길
경비-1인당 20,000원, 신청-오늘까지 류종하 장로(010-9166-0729)
교인동정: 두너-강래영, 권민지 성도(강도순 집사, 김용자 권사 독손녀)

Table with 5 columns: 번호, 이름, 주소, 생, 기관, 인도자. Row 1: 71, 맹영란, 합천길 6, 14, 7여전, 김인심

건축현금 계좌: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현금 계좌: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 십일조: 강재일 강순교 권남수 권오영 권중규 김경일 김기욱 김미수 김인구 김인심 김현경 김화춘 민창개 박장덕 박하혜 배성근 석화란 손정혜 송금주 신노균 신승현 오광섭 이명조 이순득 이진영 이화자 장은석 정수미 정순열 정주영 조경화 권기환 최경분 허유혜 홍신현
감사: 강근자 강도순 강승업 강순교 강양수 고철재 공태용 권기박 권기환 권영자 권유규 김기영 김용순 김진호 김진희 김혜경 김현경 김화춘 나성이 민기식 민요환 민창개 박유민 배성근 배종수 배진수 서종교 석화란 신원순 안진희 양술기 오윤자 이정원 이명조 이현섭 장숙이 장정순 정동수 정문호 정석진 조피영 조영애 지유화 최은영 홍신현 홍태순 이윤림손사정 고희순남 집사 가족 무명명
생일갑사: 권영준 김영훈 이 정 주정봉헌: 229명
건축: 강도순 권기박 권기환 김경일 김인심 남화연 류명희 박분순 박장덕 박지우 손혜원 이 정 이명조 이윤심 장석배 전은희 허유혜 권사희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